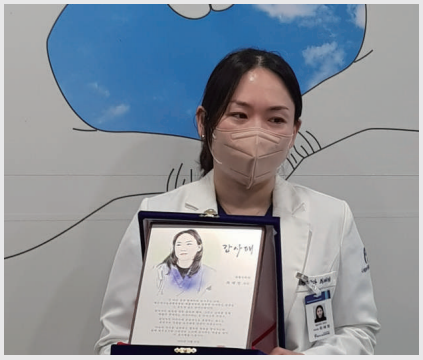
나눔으로 행복하게!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Monthly
나눔과행복소식

매월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소식을 묶어서 전해드립니다.
하루가 쌓여 계절이 되고,
계절이 쌓여 기록물이 될 것입니다.

2022.12

미션
MISSION

사람을 봅니다

모든 중심에 사람이 있는 세상, 사람을 봅니다.

비전
VISION

비전 2025

정직한 의료와 최적의 치료로 사랑받는 병원, 나눔과 행복

핵심가치
CORE VALUE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공정함

사람을 대함에 있어
공정함을 유지하는 사람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진정성

진정성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즐거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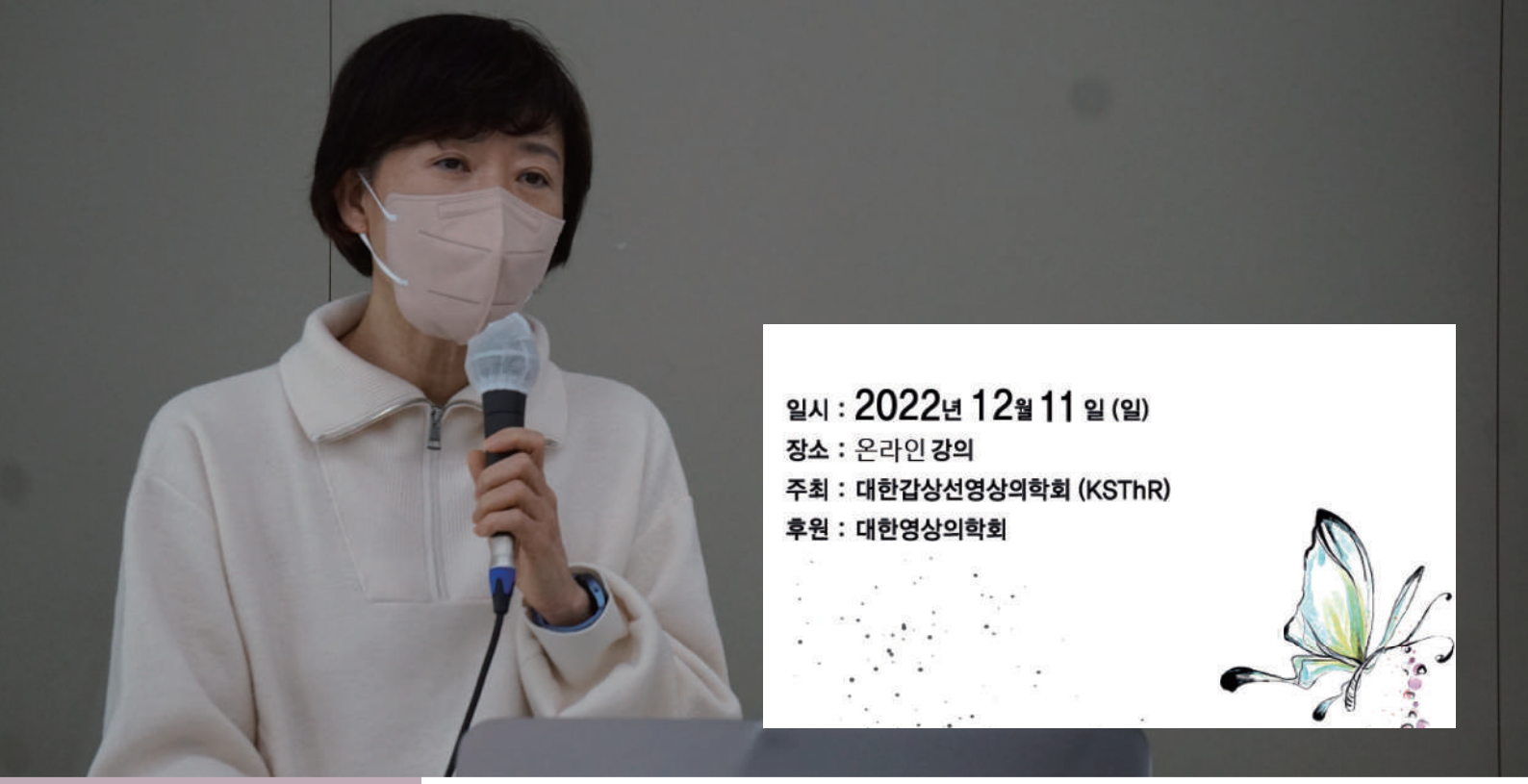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전문성을 근간으로 **진정성**을 담아, **공정함**으로 대하고 **함께함**을 느낄 때, **사회적책임**과 **즐거움**이 실현되는 곳!

전문성을 근간으로 **진정성**을 담아, **공정함**으로 대하고 **함께함**을 느낄 때, **사회적책임**과 **즐거움**이 실현되는 곳!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KSThR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 연수강좌 (12.11)
갑상선 기능 이상과 약물치료 온라인 강의

백선미 병원장님께서 2022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 연수강좌에 참석하여 갑상선 기능 이상과 약물치료에 대한 내용으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해주셨습니다.

Basic knowledge			Page
09:00-09:20	Thyroid and the central compartment of the neck: anatomy	양고은 (강원대병원)	1
09:20-09:40	Development of thyroid and associated anomaly	김수진 (강남메이저의원)	19
09:40-10:00	Extrathyroidal pathologies at thyroid US	임현경 (순천향대 서울병원)	35
10:00-10:20	US Interpretation based on K-TIRADS	정새롬 (서울아산병원)	53
10:20-10:30	휴식		
Clinical practice as a thyroid radiologist			
10:30-11:00	갑상선 외래 운영	심정석 (위드심의원)	88
11:00-11:30	갑상선 기능 이상과 약물치료	백선미 (해운대_나눔과행복병원)	98
11:30-12:00	갑상선 결절의 진단과 추적 관찰	나동규 (강릉아산병원)	130
12:00-12:30	점심		
Imaging diagnosis of thyroid disease			
12:30-12:50	Diffuse thyroid disease	윤인영 (강북삼성병원)	143
12:50-13:20	Histologic classification of thyroid carcinoma: imaging correlation	유성혜 (고려대 안암병원)	160
13:20-13:50	Follicular neoplasm: Diagnostic and management strategy	한수연 (삼성서울병원)	215
13:50-14:10	Postoperative imaging: US and CT	이지예 (서울대병원)	227
14:10-14:20	휴식		
Thyroid intervention: practical technique 을 중심으로			
14:20-14:40	US-guided FNAB	신재호 (성빈센트병원)	256
14:40-15:00	US-guided CNB	이민경 (여의도성모병원)	272
15:00-15:30	US-guided ethanol ablation	정소령 (여의도성모병원)	291
15:30-16:00	US-guided RF ablation	성진용 (대림성모병원)	2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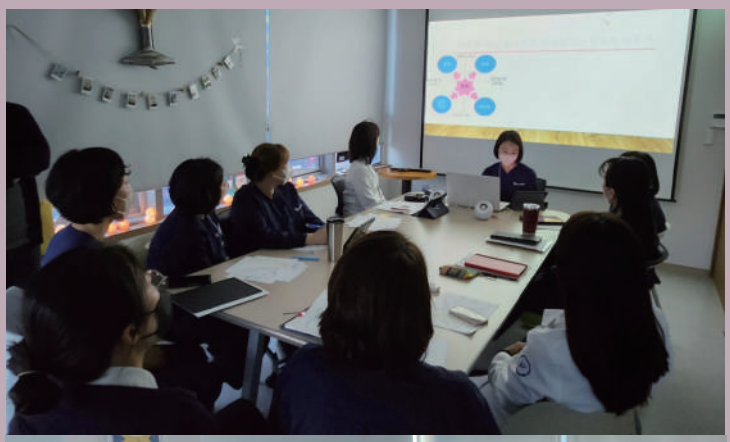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수동적 습득보다는 능동적인 배움,
함께하는 우리는 가인지 마스터 (10.07~12.23)

통합지원센터 차세대 리더들이 가인지스터디로 만났습니다.
OKR이 뭐지? 리더로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팀이란?
나란? 다양한 궁금증과 설렘, 떨림, 그리고 무게감으로
시작된 가인지스터디는 1회기를 멋지게 마무리하였습니다.
각 가스인(가인지스터디인의 줄임말)들 한명한명 수업 시작과
마무리를 주체적으로 잘 이끌었고 매회기 준비한
아이스브레이킹은 서로를 알아가고 공감하며 소통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의 주제를 통해 서로 나눈
이야기들은 주요 맥락을 이해할 수 있었고, 핵심사항을 다시
한 번 리마인드 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업무 마치고 부랴부랴,
때론 누군가는 아이가 아파서 부득이하게 결석도 하고,
때론 내시경센터의 주요 일로 부득이하게 연기도하고,
일주일 중 금요일 오후, 한 주의 마무리를 가스와 함께하는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드디어 OKR 파티!
한 회기를 돌아보고 마무리하면서 새로 알게 된 지식도
나누고, 다음 OKR도 세워봅니다. 한 명 한 명이 한강씩
이끌어준 복습의 시간은 떨림과 도전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조금 서툴고 부족한 듯 느껴져도 그 과정 과정 순간순간이 다
의미 있고 소중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나의 마니또에게 TEB(Thank Evidence Benefit)을
통해 감사도 나누고
모두에게는 함께 축하와 격려도 나눕니다.
감동의 눈물도 흘리고, 뜨거운 포옹도 나누고요.

가스 2기는 따스한 봄날 2회차로 다시 만납니다.

우리 해나행 가족들이 누구나 가인지스터디로 함께 만나길
기대합니다.

일시 : 2022.10.07.~12.23. 매주 금요일 15:00~17:00,
장소 : 6층 회의실
대상 : 가인지스터디 2기 9명
내과 - 김서우, 임소영, 신지은, 황희경
유방갑상선 - 정세경, 권혜정, 정희진
건강검진센터 - 김수정
사회사업팀 - 김지헌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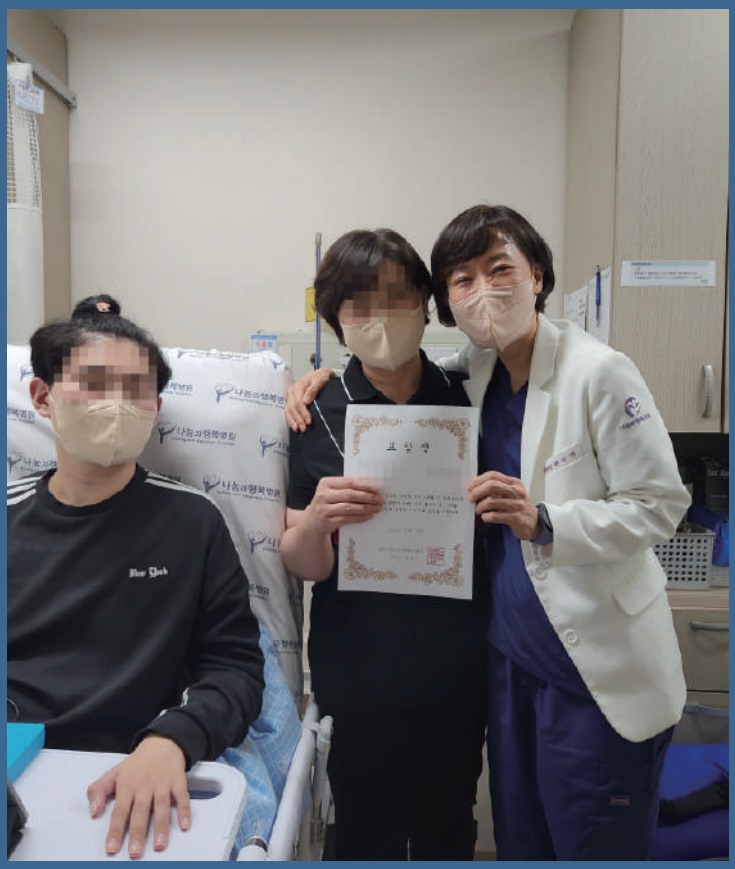
간호팀과 원장님이 함께하는 ‘소담소담’ (그랜드 라운딩) (12.13/12.27)

생활재활센터(병동)의 치료적 환경 조성과 전문재활간호사로서의 역할정립, 참여자를 중심으로 한 재활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간호팀과 원장님이 함께 그랜드라운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3일에는 6생활재활센터, 27일에는 8생활재활센터를 원장님, 간호팀장님, 해당병동 파트장님이 참여자 병실을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병원생활의 불편한 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등 참여자와의 알찬 라운딩을 진행했습니다.

참여자의 병원 및 병동생활에 있어 병원과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애씀의 고마움을 표현하는 뜻깊은 라운딩이었습니다.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함께 만들어가는 2023
팀리더 워크숍 (12.10)

10일 토요일 이른 시간에 각팀 리더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팀리더 워크숍을 통해 병원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2023년 각 센터별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여 팀 내 소통과 협의를 통한 비전에 한 걸음 다가가는, 변화하고 성장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올바른 식생활 예방 및 비만관리 교육
동아대학교병원 최미옥 영양사 (12.17)

본원과 지속적으로 연계하고 있는 부산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올바른 식생활 예방 및 비만관리 교육'내용으로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동아대학교병원 최미옥 영양사님께서 참여자의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건전한 식습관 형성 및 잘못된 식습관을 교정하여 영양장애로 인한 문제와 비만을 예방하는 건강한 식생활에 대해 교육해주셨습니다.

슬기로운

재활생활

낙상과 욕창 교육
환자안전전담 양희진 간호사 (12.24)

간호팀에서 참여자들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낙상과 욕창이란 주제로 특별한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환자안전전담 간호사 양희진 선생님께서 낙상과 욕창의 개념과 예방을 위한 전략 및 대처방법과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실생활에서 실천해야할 안전습관, 환경변화에 대해 자세히 교육해주셨습니다.

생활치료실 연말 파티 이벤트
‘유화 작품 전시회 및 포토존’ (1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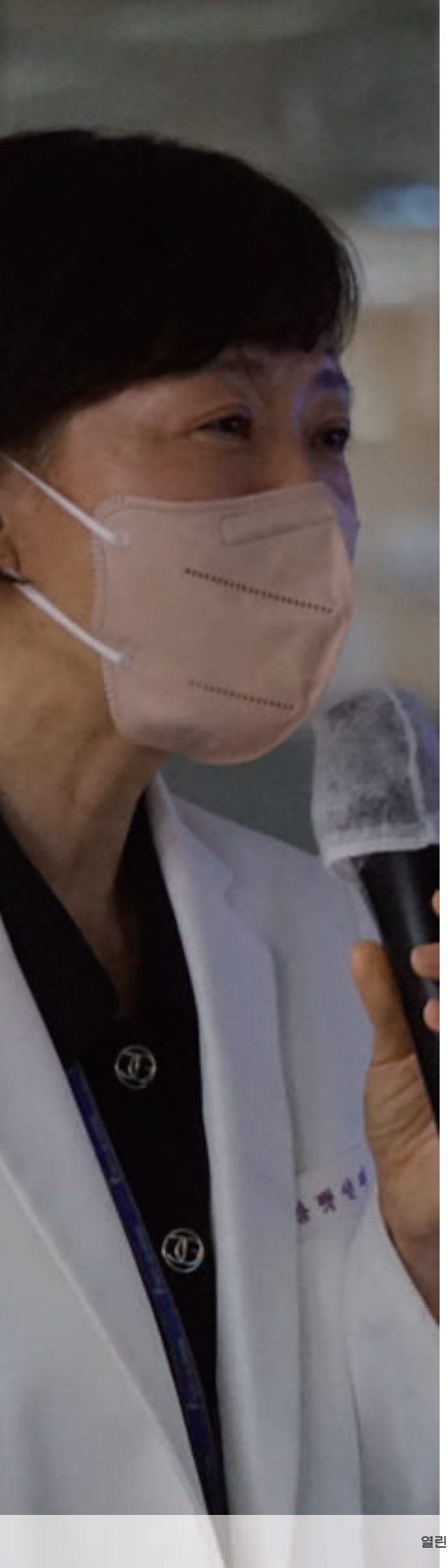
생활치료실에서 참여자분들이 직접 그린 유화 작품 전시회와 더불어 연말 파티 포토존을 개최하였습니다.

치료를 위해 입원한 참여자들이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과 함께 그림을 그려가며 질병 이후 잠시 잊고 있던 자신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함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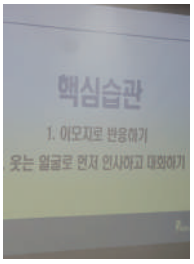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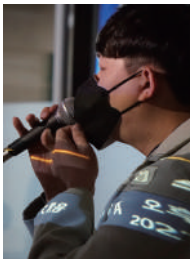
산마당



개원기념일&송년회 (12.07)

이태원참사 관련 국가애도기간에 동참으로 한달 연기되었던 개원11주년 기념일 행사가 송년회와 함께 12/7일에 진행되었습니다. 1부에는 개회와 시상, 핵심습관 선포 등이 진행되었고, 잠시 10분의 휴식을 가진 후 2부에서는 각종 이벤트 및 새로고침 프로젝트, 장애인럭비 및 브랜딩실 발표 그리고 어울림 한마당을 진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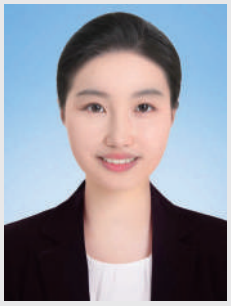


우리는 가족입니다.
12월의 신규입사자

재활의학과 차은겸 진료과장

뉴미디어팀 박현기 팀원

간호팀(7W) 김유진 간호사



간호팀(8W) 허효성 간호사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 정현종 시 「방문객」 중 -

긴 시간 동안 함께하며 보여주신 사랑,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재활의학과 성장에 기여하신 과장님
그 공로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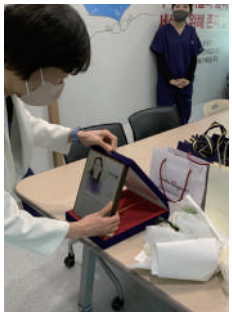
참여자의 회복에 대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신뢰를 통해
재활이 함께하는 과정이라는 걸 인식시켜 주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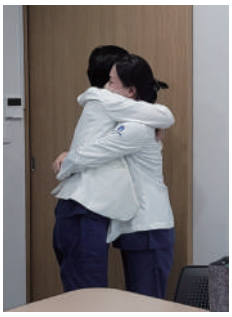
참여자의 이야기에 공감적으로 경청하는 태도는
참여자와 직원들 모두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병원을 열어가는데 함께 해주셨기에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재활의학과 최혜정 과장님
환송식 (12.28)

28일에는 오랜시간 함께 하셨던 재활의학과 최혜정 과장님의 환송식이 있었습니다. 함께한 시간만큼이나 아쉬움이 많았던 자리에서 애써 웃음과 눈물을 보여주셨던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자원봉사자의 날
(사)한국예술문화복지사 부산광역시지회 러브뮤직문화공연단 후원금 전달식 (12.05)

사회적 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사)나눔으로행복한동행 부산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 (12.23)

사회적 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일상속으로 프로젝트 팀은
참여자 가정 구조 개선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일상속으로 프로젝트를
신청해주신 한O희님의 거주지 내
·외부 맞춤형 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 의논하기 위해
참여자 자택으로 가정방문을
나갔습니다.

주거개선사업 (12/21)
'일상속으로 프로젝트' 가정방문

사회적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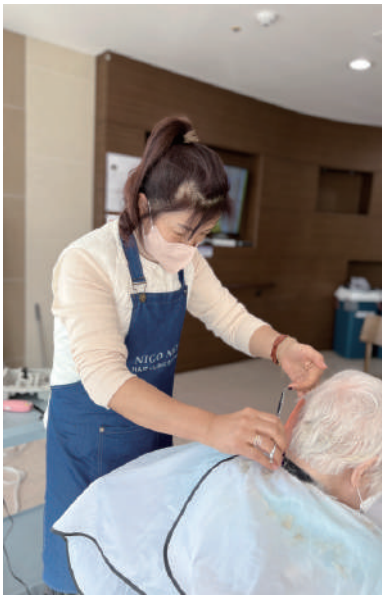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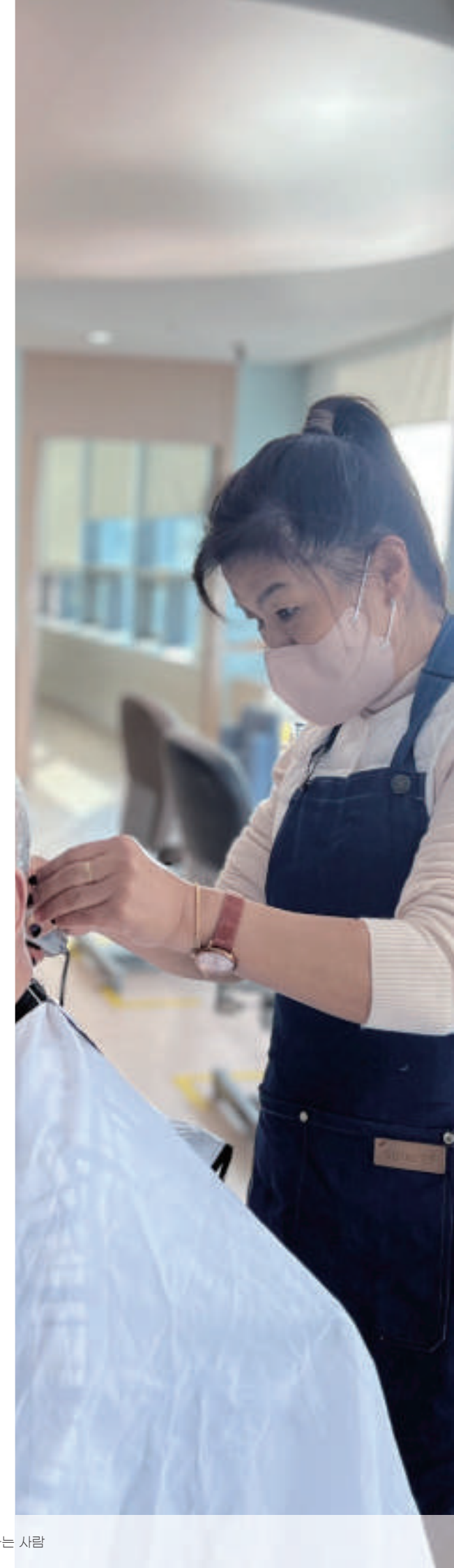
찾아가는 서비스
이미용프로그램 (12/13, 12/16)

사회사업팀에서는 병원 생활 동안 참여자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해 매달 이미용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이 참여자분들을 위해 약속된 시간에 방문해주심으로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고, 재능나눔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이번 달은 크리스마스 연말에 가족을 만나러 가는 참여자 분이 많으셨는데요. 프로그램을 통해 예쁘고 멋진 모습으로 가족들과 행복한 연말 보내셨길 기원합니다.





즐거움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원장님과 와인데이트 쿠폰 (12.19)

간호팀 한혜지 간호사

지난달 재활간호 전문교육에서 간호팀에서 이벤트로 실시했던 경품 중에는 '원장님과 와인데이트 쿠폰'이 있었습니다.

이 쿠폰은 원하는 날짜에 맛있는 음식과 함께 원장님과 단둘이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쿠폰입니다.

지난 12월 19일에 6병동에서 근무하는 한혜지 간호사 선생님이 이 쿠폰을 사용하여 원장님과 근사한 저녁 데이트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원기념일 및 송년회를
하루이틀 앞두고, 사전행사로
훌라후프 릴레이 예선과
준결승을 진행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모든 팀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응원도 뜨거웠습니다.

개원기념일 어울림한마당 사전행사
‘훌라후프 릴레이 예선, 준결승’ (12.05~06)

즐거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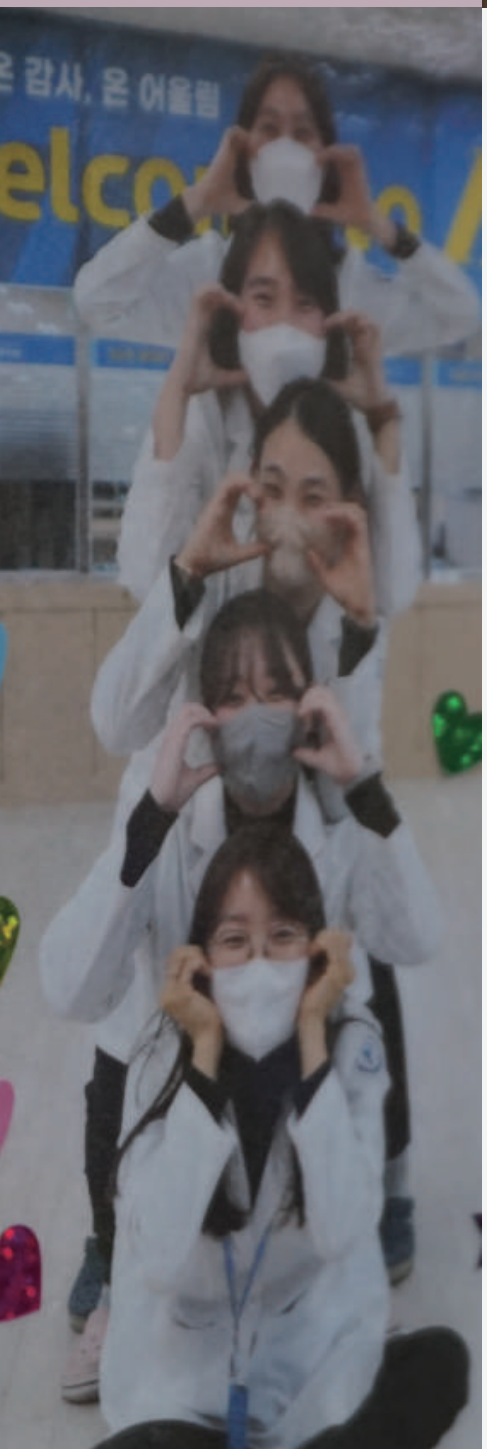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사회사업팀과 함께하는

12월 연말 행복 더하기+1

덕분에 사진콘테스트

(12.19~31)



'작은 순간들이 모여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듭니다.'

사회사업팀에서는 연말을 맞이하여 감사함을 담은 사진전 '덕분에 사진콘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12월 19일(월)~12월 31일(토) 기간 동안 열리는 '덕분에 사진 콘테스트'는 병원 또는 직장에서, 일상에서의 다양한 사진을 구경함으로써 즐거운 분위기를 느끼고 소중하고 고마운 사람들을 떠올려보며 따뜻함으로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즐거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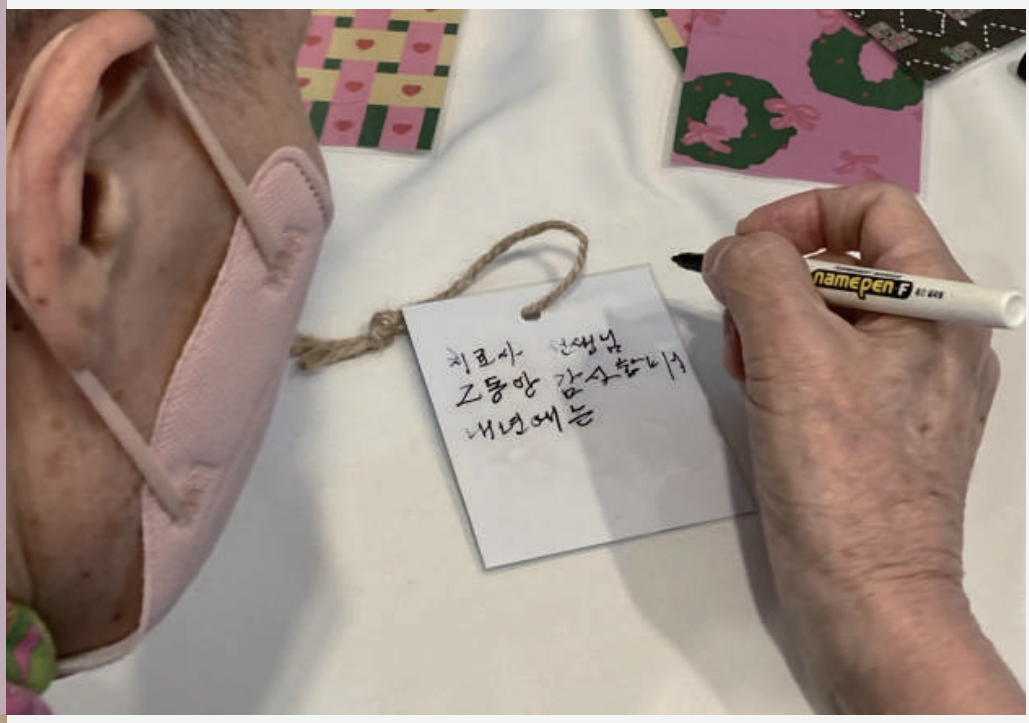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사회사업팀과 함께하는

12월 연말 행복 더하기 +2

크리스마스 포토존 & 소원나무

(12.19~23)



행복미니도서관에는 크리스마스 연말을 맞이하여 크리스마스 포토존과 소원트리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 행복미니도서관을 찾아주셨으며 크리스마스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폴라로이드에 소중한 추억을 담았습니다. 이어서 크리스마스 소원나무에 내년 다짐과 소원을 적으셨는데요. 자신의 소원을 정성스럽게 작성하여 소원나무에 달며 따뜻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가셨습니다.

사회사업팀과 함께하는

12월 연말 행복 더하기+3

웃음가득 크리스마스 노래자랑

(12.22)

예술문화복지사 부산지회
러브뮤직 김미애 강사

12월 22일(목), 저녁시간 '웃음가득' 크리스마스 노래자랑이 열렸습니다. 노래자랑이 진행되기 전 깜짝 댄스 배틀이 진행되었는데요. 춤에 자신 있는 보호자들께서 한껏 춤사위를 뽐냈습니다. 춤 배틀에는 사회사업팀 선생님들도 함께 동참하여 열기를 북돋았습니다. 크리스마스 노래자랑에 총 10명의 참여자께서 노래를 신청해주셨고 참여자와 보호자께서도 오랜 병원 생활로 인해 마음이 지쳤었는데 이런 재미있는 하루를 선물 받아 고마워하셨습니다. 노래자랑이 끝나고도 여운이 남는, 모두의 마음이 따뜻해진 하루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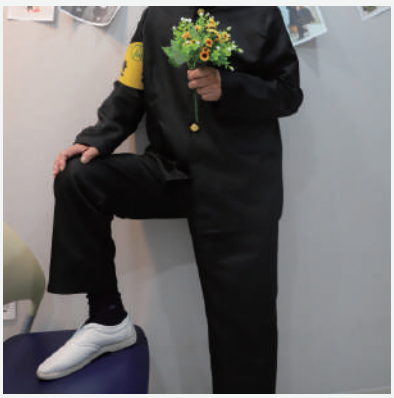
사회사업팀과 함께하는

12월 연말 행복 더하기+4

행복 스튜디오 시즌2

(12.23)

추억의 그때 그 시절 옛 추억을 여행할 수 있는 '행복 스튜디오'가 이어서 진행되었습니다. 작년, 행복 스튜디오 season 1에서는 한복 컨셉으로 큰 인기를 얻었고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 입어 행복 스튜디오 season 2로 다시 돌아 왔는데요. 이번 행복 스튜디오에서는 학창 시절을 추억하며 옛 교복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교복 사진관'이 운영되어 올해에도 많은 참여자와 보호자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즐거움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다양한 이벤트 프로그램

그룹치료 프로그램
크리스마스 목화 리스 만들기 (12.21)

크리스마스 이벤트 프로그램
붕어빵 만들기 (12.22~23)

연말 이벤트 프로그램
2023 탁상달력 만들기 (12.29)

즐거움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홍보팀장의 '브런치' 여덟번째 이야기

브런치는 글이 작품이 되는 공간입니다.

나는 평생 절대로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인가?

만일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오, 라면 지금 당장 시작하면 어떨까?

누구에게나 아침 알람은 울린다. 그 시간이 다를 뿐이다. 새벽인지 아침인지 경계선이 모호한 05시 05분이다. 내 스마트폰에 울리는 첫 번째 알람이다. 울리는 소리만 잠재우고 벌떡 기상한다. 간밤에 쌓인 방광 속 이물질을 배출한다. 손만 씻는다. 바로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간다. 눈을 뜬지 고작 5분의 시간이 더 흘렀을 뿐이다. 바깥은 여름이다. 이른 시간이지만 한낮처럼 밝다. 뚜벅뚜벅 주차장으로 걸어가 차에 시동을 켠다. 아침 출근 전 들러야 할 그 곳으로 간다. 부스스한 머리로.

40대가 되면 이제 소홀했던 건강관리에 대한 채무가 청구되는 시기라는 기사를 봤다. 어딘가 하나씩 아파온다는 것이다.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지금 관리를 하지 않으 면 50대 때 정말 큰일 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 좋은 명언도 내 가슴이 거부하면 명언이라 할 수 없다.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다. 사실 정답이다.

77년생이 간다. 나는 올해 46살이다. 살면서 헬스장(지금은 피트니스센터라고 많이 불리지만)을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다. 그렇다고 몸관리를 잘하냐고? 전혀 아니다. 저질 몸매다. 전형적인 배불뚝이 아저씨다. 허리띠는 온데간데 없고, 유행하는 고무줄바지 개수만 늘어나고 있다. 이 바지의 장점은 편안함이다. 단점은 허리둘레가 늘어남을 인지하기 힘들다. 유행에 따라가는 속도보다 살찌는 속도가 더 빨라질 모양이다. 그렇게 거울 속에 내 체형은 어릴 적 TV속에 등장하는 이웃집 아저씨의 모습이 되어 있었다. 슬프다.

'나는 평생 절대로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인가?'
'만일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오, 라면
지금 당장 시작하면 어떨까?'
소중한 것들은 나중에 몰아서 한꺼번에 시간을 낸다고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_팀페리스《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토네이도)

40여분을 달린 후 차는 직장 근처 주차장에 멈췄다. 시간은 6시 남짓했다. 간밤의 열대야로 새벽에도 덥다. 승강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간다. 안내데스크의 모니터에 4자리의 숫자를 입력한다. 운동복 상·하의와 수건을 챙겨든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러닝화를 신는다. 비어있는 러닝머신에 올라가 전원버튼을 누른 후에야 나의 아침운동은 시작된다.

그동안 읽었던 자기계발서는 비슷한 공통점이 있다. 저자들 대부분이 책을 많이 읽는다. 메모도 하고 글쓰기도 좋아한다. 영화가 취미고 음악도 즐겨듣는다. 미술에 관심이 있거나 역사 및 세계사에 흥미가 있다. 그리고 바로 운동이다. 동네 한 바퀴 걷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뛰는 걸 좋아하는 사람, 헬스처럼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등 종류와 형태는 다양하다. 하지만 결국 꾸준한 운동으로 자기관리를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했다. 책, 메모, 글쓰기, 음악, 미술, 역사, 세계사 등 웬만한 건 다 따라 해봤는데 운동만큼은 시작조차 안 해봤다. 집근처 헬스장은 비싸다. 새벽에 운동하고 출근하면 피곤하다. 밤에는 애들과 함께해야 한다는 온갖 핑계를 대며 철저하게 선을 그었는지도 모른다.

예전부터 하고자 했던 일,
그게 글이거나 운동이거나 혹은 공부여도 좋다.
지금 시작해 보라.
진부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지만,
먼 훗날 당신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는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
그 작은 시작을 통해 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_전승환《나에게 고맙다》(허밍버드)

아인슈타인이 남긴 명언 중에 같은 행동을 취하고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일은 없다는 말이 있다. 가장 최근에 읽은 책에서 메모한 부분이다. 이 글귀 하나가 어쩜 무더운 여름날 난생처음 헬스장으로 이끌었는지 모른다. 날씬한 몸을 바라지도 않는다. 건강한 몸을 바랄뿐이다. 뱃살이 빠진다면 금상첨화다. 멋 훗날 내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는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6시에 시작한 러닝머신은 35분간 굴러가고 나서야 멈췄고, 윗몸일으키기 20개 정도 추가로 하고 나서야 샤워장으로 향했다. 온 몸이 땀범벅이지만, 땀은 물을 이기지 못한다. 시원한 샤워줄기에 몸을 씻고 나면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다. 밖으로 나와서 주차장 걸어간다. 직장까지 차량으로는 1분 거리, 걸어서는 3분정도 거리다. 직장 주차장에 다시 주차 후 사내식당에서 먹는 밥은 꿀맛이다. 살을 뺀다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건강한 삶이 목표이기 때문에 아침은 든든하게 먹는다.

그러니 저마다의 이유로 각자의 길 위에 오른 뒤, 일단 달리기로 마음먹었다면, 맨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그 외롭고 아슬아슬한 곳에, 놀라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_유병욱《생각의 기쁨》(북하우스)

살다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각자의 삶에 충실하고 있다. 바쁜 오늘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그 일상에 작은 변화를 번복하면서 다양한 도전을 한다. 그 어떤 도전이든 각자의 길 위에 오른 뒤, 일단 달리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맨 끝까지 가보자. 그 외롭고 아슬아슬 한 곳에 얼마나 놀라운 힘이 숨어 있을지 모르니까.

여름에서 어느새 겨울로 넘어왔다.
새해를 앞두고 또 다시 다짐한다.

#새로고침

끊임없는 일상의 관찰

브랜드는 우리들의 삶과 일상을 닮아갑니다.

사람을 봅니다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소식 채널 안내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서는 2022년 하반기 뉴미디어팀을 신설하여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채널을 새로 개편해 운영중에 있습니다.

—

본원에서 이뤄지는 모든 경험의 목적은 관계입니다.

거래가 사람과 상품을 연결하는 것이라면,
관계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미있는 경험은 사람을 동반합니다.

이곳에는 개인의 삶도 있고,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상에서 마주치는 사소한 우연, 낯선 경험들이
가치 있는 의미와 차이를 그려나가겠습니다.

—

다양한 채널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등 많은 관심바랍니다.
작은 관심이 또 다른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유튜브 바로가기	블로그 바로가기	페이스북 바로가기
Instagram	YouTube	NAVER 블로그	facebook

<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시면 해당채널로 바로 연결됩니다. >

오늘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그날을 **추억**합니다.

공유하는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월간소식지

발행일 2022년 12월 30일
편집인 홍보기획팀
발행처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http://www.snh.or.kr